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기도서 290 편(A해)

제1독서 : 사 도 2, 14a, 36-41

제2독서 : I 베드 2, 20b-25

복 음 : 요 한 10, 1-1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진 빵

박창신 신부

성소주일에 진빵을 묵상하기로 했다. 이유는 이미 없 어졌기 때문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없어진 것과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름과자집, 목공 소, 양화점, 양복점, 새끼가마니 등등...

얼마전만 해도 "정 해먹을 것이 없으면 진빵 장사라도 한다"는 말이 우리 입가에서 자주 오르내렸다. 한마디로 진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호구지책의 상징이었다. 맞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일제부터인가 우리는 맛들고 편리하며 풍부한 것을 찾 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화는 꼭 필요하리라. 이를 위 해 외국의 기술제휴와 외자(外資)들이 우리 주변을 뒹 돌 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호! 호! 호빵이 아름다운 선진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진빵은 규모는 적 지만 내자(內資)임에 틀림이 없었으나 호빵은 좋은 기술 과 큰 자본으로 만들어져 더 좋게 보였고 선진까지 걸들 여 우리의 구미를 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살짝 먹어 치워 버린 것이다.

진즉 진빵들이 뭉칠 수 (組合)있었든지,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한계가 똑바로 있었던지, 서 로 조화있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이런 우를 크게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빵들은 뭉칠 수 없어, 사람들 생각에서도 없어져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애석하게 사라진 것이다. 그래 도 진빵은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디론가 찾아가야 했 다. 배운 것이 그것이크므로 큰 것에 찾아가든지 낮은 곳 에서 어떻게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 라 꼭 참고, 여기 있노라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살 아갈 수 밖에 없다. 가진 것과 여기 있노라는 비례합수 관계가 있음을 생각할 때 진빵은 있을 조차 찾을 길 없 어 깊은 칠푼 속에서 소외되어 병들고 하느님 마저 설길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야훼 하느님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돕기 위해 예언자들을 부르셨다.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죄장이가 아니라 현실상황에서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야훼를 편들어 말할 뿐 아니라 소리없는 자들을 편들어 떠들라 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뜻깊은 성소주일을 맞아 이러한 성소가 되도록 하며, 이러한 성소가 많아져서 이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 제와 수도자들이 많아지도록 부름 주시는 야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오릉동 주임신부)



화해와 용서

-5월의 광주

4년 전 이 땅에는 소위 「광주사태」라는 것이 있었다. 다시 敎區報 숲정이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라와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머릿기사만을 적고 나머지는 본당소식으로 채웠다. 너무나 엄청난 현실에 말할 바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를 방문한 교황 성하는 "용서의 위 대권"을 역설하시며, 이 지역(光州)에서 일어났던 불행 한 일들의 추억을 씻을 수 없는 이들에게 특별히 "화해 와 용서"를 말씀하셨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충체육관에서 "노 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이 불백 리스트에 올라 취업이 되 지 않고 있으며 민주 학생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고 소리친 젊은이는 교황께서 강조한 "화해와 용서" 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언론인은 "진정한 살풀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 다. - "엄마 뱃속에서 학살당하는 아기들과 그 아기들을 모살하는 부모들과의 살풀이. 5·16, 3선개헌, 유신, 긴급조치...또 그후의 무엇무엇하던 때 척을 진 그 술한 이 쪽 저쪽간의 진정한 살풀이. ...화해의 살풀이는 반드시 正義를 충족시킬 「진정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번째 일흔번까 지라도", 다시 말해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 십자가에 못박혀 매달리신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 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 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께 서도 게세마니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하 는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시기도 했다. 참으로 어 렷다.

주여, 일방적인 화해와 용서의 대명제 앞에서 떨고 있 는 우리를 굶어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 에서 이루어소서.

숲 정 이 산책



어떻게 성소를 식별할 것인가?

생명의 요람

박 데 레 사 수녀

성소 혹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부르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기쁨을 식별함으로써 알 수 있다. 사제나 수도자가 된다는 생각이 기쁨과 평화를 불러 일으킨다면 하느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이유를 다 갖춘 것이다. 하느님은 평화와 기쁨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극히 어려운 일을 지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근본적으로 항상 가져야 할 태도는 침착하고 개방적인 태도이다. 동시에 몰아적(沒我的)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주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하고 말하는 태도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선량하고 슬기로운 사제의 인격 안에서 교회와의 일치를 모색할 일이다. 사제는 묻는 사람의 자유를 감시시키는 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다. 자유 선택만이 그 직무에 적합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확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 있어서 공동체가 하는 역할은 더욱 높은 단계에 있다. 교회는 위제제도를 통하여 지원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 결정적인 소명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성소의 발달에까지 올라가서 본다 하더라도, 언제나 공동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본당, 그 아이가 교육받은 학교, 그 후에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인류에 대한 봉사와 그리스도와의 일치 정신이 충만한 생활에서 전망을 열어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소의 발달을 되돌아보게 되면 온전히 유효하거나 고상하다고는 못할 동기들이 더러 작용한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온전히 원숙한 동기로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원자는 소명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정화와 자기 반성을 하는 수련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생활 자체, 즉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있어서 원숙하고 노련해져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 동기를 더욱 순수하고 깊게 할 수 있다. 물론 애초의 결심과 그 실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참으로 큰 연속성을 주는 이는 '살아계시는' 주님, '예기치 아니한' 주님 이시다. 바로 주님과 함께 출발한 것이 성소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가장 살아 있고 가장 예기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제요, 수도자인 것이다.

사랑을 담은 눈길은 보이는 어느 것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

요즈음 시외버스를 타고 시외로 나가다 보면 한참 생명의 호흡을 내쉬는 산야를 접하게 된다. 산은 산대로 방금 탄생시킨 작은 잎새들에 생명의 숨을 넣어주고, 눈발은 그들의 생명을 불어줄 보금자리를 마련하느라 바쁜 계절을 살고 있다. 그러기에 산과 들은 생명의 요람이요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현대 세계를 사는 수도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더 풍요로움을 맛 볼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낳아준 물질세계에서 편리하게 살고 있다. 어쩌면 부끄러움이만치...하지만 수도자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에 비례한 메마르고 차가운 물인정한 세계에 살고 있다. 하기에 이러한 세상에 물들 수 있다. 그 반대의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필자가 첫서원을 하고 서울의 모 본당에 파견되었을 때, 부인성가대의 반주를 하는 소임이 있었다. 성가대원들인 부인들은 40~50대의 지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성가대 지휘자도 꽤 수준급의 지휘자라고들 하였다. 첫서원을 한 수녀가 아무리 재주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그들이 보기엔 어설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혼 혼하게 느끼는 것은, 그들에게는 수녀를 감싸주는 사랑이 있었다. 지휘자인 야고버 선생님, 성가대원들, 함께 생활하는 주임수녀님, 이런 분들의 격려와 사랑, 인격을 존중해주는 아름다움은 필자가 생활을 하는 지혜가 되었다.

모든 생명에 사랑을 넣어주고, 감싸주고 조화롭지 못한 세상에 조화를 이루는 이음줄이 수도자의 역할이다. 수도자는 많은 말을 할 줄 모른다. 유식하게 강의할 줄 모른다. 그러나 수도자의 부드러운 눈길과 입가에 맺도는 미소, 겸손한 마음가짐, 땀뻣해진 손가락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갈아놓은 논밭이며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수도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겠지만, 늘 그렇게 못함은 '인간이기 때문에'라고 변명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교회가 바라고 모든이에게 기대되는 상은 생명의 요람으로써 있어주는 끝없는 사랑과 수도자로부터 넘치는 기쁨의 생활일 것이다. 때문에 수도자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체회 수녀원)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워 크 엔 드 [간 이복]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남**

전주시 중앙동3가 삼화약국 옆 ④4451 주인 율리안나

챌 린 저 주니어북

개국 이래 처음 방한하시는 교황님의 방문을 기리 기념하기 위하여 (주) 국제상사 프로-스펙스에서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교황님의 방문을 기념하는 기념품을 아래 점포에 문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스펙스 **PRO-SPECS** 전주 코아 대리점

전주 코아백화점 1층 ☎ 72-0551

모시는 말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제의 길을 걸으신
 범 석규(마티아) 신부님께서
 올해로 은경축을 맞으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세월의 사제생활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노고를 위로해 드리고자
 조출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쁜 자리에도 함께 하시어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미사·축하식 : 5월 14일(월) 오후 2시, 전동 천주교회
 축 하 연 : 5월 14일(월) 오후 3시30분, 전주 관광호텔
 모시는 이(조카들) 범 선배(라우렌시오) 신부
 영배(타 파 엘) 신부

□ 교구 사제 인사이동

84년 5월 10일자 인사이동. 인수 인계는 17일이며 부임은 19일까지 하시게 된다.

성 명	가 시 는 곳	계 시 던 곳
안 용 기 신부	정읍 주임	해성 중교감
박 종 근 신부	임실 주임	정읍 주임
조 정 오 신부	라디오 베리파스(필리핀)	임실 주임
권 이 복 신부	동산 주임(신설)	군중 제대
박 찬 길 신부	유 학	전동 보좌
나 춘 성 신부	중앙 보좌	노송 보좌
정 양 현 신부	전동 보좌	덕진 보좌
경 규 봉 신부	해성 중교감	월명동 보좌
이 성 우 신부	노송 보좌	새 신부
김 요 안 신부	덕진 보좌	새 신부

□ 제5기 쉐타 예비자반 모집

개 강 : 5월 25일(금) 오후 7시30분 신청기간 : 5월 21일까지
 접수처 : 교구청 교육국(가톨릭 쉐타 내) 기타 문의 : 교육국(☎ 0041~3)

□ 전주교구 7위 성인 ①

성 조 화서 베드로(1815~1866)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조 화서는 1839년 기해 박해로 아버지 조 안드레아가 순교하
 자 곧 충청도 신창으로 이사하여 한 막달레나와 결혼, 아들 윤호를 두었다. 한때 최 양
 업 신부의 복사로 신부를 보좌했다. 다시 조 화서는 1864년 전주지방의 교우촌인 성지
 동으로 이사했고 아내가 사망하자 김 수산나와 재혼했다. 1866년 병인 박해가 지방으로
 확산되어 전라 감사의 지시로 12월 5일 아들 윤호, 이 명서, 정 원지 등과 함께 체포되
 어 전주 감영 전면옥에 갇히게 되었다. 옥에서 조 화서는 "네 마음이 변할까 염려된다.
 관장 앞에서 진리대로 말하여라"하고 아들을 격려했고, 아들 윤호는 "저는 염려하지 마
 십시오. 아버님께서도 조심하십시오" 하고 격려하며 부자가 서로 순교를 각오했다.

6,7차의 신문을 아들과 함께 받은 조 화서는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척하며
 배교를 권유하는 관장의 유혹을 거부하고, 드디어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 밖 숲정사에서 참수형을 받아 52세의 나이로 순교했고, 아들 윤호도 10일후인 12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순교하여 3대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

안 내 말 씀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각 공소 및 가정에 성모상을 모
 시고 은혜를 구합니다.

- 강당 및 정원은: 높이 100cm 가격-6만원
- 실내 가정용: 높이 75cm 가격-3만원 재료-F.R.P

(섬상, 성화 부조, 기타 조각 일체)

신세기 조각 연구소

☎ 4-5633, 3-2107 김 시 문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요심이(562) 김병오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쉐타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길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
 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건강을 드려요

전주 중앙시장 입구

시민약국

☎ ④ 0009 · ⑤ 3338

김 마 텔 로
 정 엘리사벳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②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4) **쇼 정 이**



1. 초등부 교리교사 피정: 19일 오후 3시~20일 (2·3·4지구), 26일 오후 3시~27일 (1·5지구), 장소-센타, 참가비-(도시본당) 5천원, (시골본당) 4천원
2. 전주지구 M·E 소식: 19일 오후 3시-소개 모임, 오후 4시-6차 제모임
3. 제1지구 어린이 대잔치 및 성가 합창대회: 20일 오전 9시30분, 장소-성심학교 강당 준비물-도시락·신발주머니
4. 중·고생 지도자 연수회: 26일 오후 4시~27일, 장소-센타 주제-'하느님과 읊'(읊기를 2회 읊을 것), 참가비-6천원
5. 제3기 베벨서서 개강: 30일 오후 7시30분, 장소-센타, 신청마감-5월 16일로 연기됨
6. 권 이복 신부님 전역 축하미사: 5월 14일 저녁 7시, 센타 성당(미사후 축하식)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김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1~3

☆ **성모성월**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성모성월 기도: 매일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오후 2시
 4. 울뜨레아: 27일 공식미사 후
 5. 성모의 밤: 31일 저녁 8시
 6. 벽돌봉헌: 17,953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503,870원 교무금: 129,500원
특별헌금: 한겜마 감사헌금-5천원

(노총동)

주임 신부 김웅태
보좌 신부 나춘섭
사도 회장 이홍재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1. 본당신자 전례피정: 19일 오후 7시30분~20일까지 본당내의 모든 신자들 참석하세요
 2. 사제양성 후원저금통 봉헌식: 오늘 각 미사중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봉헌합니다
 3. 성전 신축헌금 십입서 봉헌식: 1차 봉헌식-20일(간부님들), 사도회·건축추진위원·각단체·구역봉사자·구역장님들은 1차 봉헌식에 출전하여 봉헌합니다
 4.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도회임원·각구역장님·공소회장님들 빠짐없이 참석 바람
 5. 건축설계위 및 행사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립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주일학교 성가경연대회: 20일 오전 9시30분, 성심학교 강당에서
 8. 본당 울뜨레아: 오늘 저녁 8시
- 교무금: 138,3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정양현
사도 회장 양상열
신부 (3)2182
전화 수녀 (72)1222
사무 (72)6259

1. 오늘의 모임: 요셉회·성모회·청년회·중·고등학생회
2. 유아세례 및 보례: 오늘 오후 2시(아동미사 전)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람
3. 예비자교리: 23일 저녁 8시 개강, 많은 인도 바람
4. 「성웅 김대건」 영화상영: 20일 밤 8시30분 본당에서
5. 차주모임 예고: 반석회
6. 금주 본당청소: 반석회·까리따스회(19일 오후 3시)
7. 여의도 시성식: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당에서 600명 참가)

(복자)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전화 ②5238번

1. 유아세례: 15일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3.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오늘 공식미사 후(김수녀님 지도)
5. 성가연습: 매미사 10분전(전신자) 김수녀님 지도
6. 주일학교 소풍: 오늘 오전 10시 본당 집합

7. 부활때 영세자 모임: 17일 저녁미사 후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이상인 ②장동주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36,895원 교무금: 154,995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동준
보좌 신부 김낙균
신부 ②8307번
수녀 ②2276번

1. 모임: 반장님 월례회-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성심회-오늘 오후 2시, 울뜨레아-15일 저녁미사 후, 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사목방문: 8·7반-15일·16일
3. 친선 체육대회: 상관·서학동-학생회, 오늘 오전 8시30분부터, 장소-교대부속국교 운동장
4. 유아세례 및 병자방문: 17일 신청 요망
5. 성심약국 주일학교예 2만원 기증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형식 ②함문권

(쇼정이)

주임 신부 김종길
보좌 신부 김수결
전화 ②7366
수·유 ②9567

1. 사도회·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누깰다 부녀회: 16일, 경노잔치 본당 교우 할아버지·할머니는 많이 참석해 주세요
 3. 환자 봉성채: 16일 11시
 4. 미사시간 변경: 14일부터 저녁미사 8시로
 5. 구역모임: 서신1구-15일 오후 2시, 어은골-15일 오후 8시, 서신2구-16일 오후 2시, 친북1동-17일 오후 2시, 동양아파트-17일 오후 8시30분, 금암2구-18일 오후 2시
 6. 금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김영채·문안나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노재두·교영숙
- 지난주 봉헌금: 토요일-54,280원
주일-주일금 24,740원, 교무금-23,4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치삼
보좌 신부 박찬병
신부 ①6208
전화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공식미사 후
3. 성마리아 꾸리아: 오후 2시
4.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꼬미시움: 다음주 오후 2시
6. 신학생 후원회에 가입하세요: 1구좌-1천원 83년 미남분 속히 납부 바랍니다
7. 교무금 십입 받습니다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이상태,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유기동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김운주, 독서-①이훈 ②최원일

(호자동)

주임 신부 박종신
보좌 신부 이교성
신부 75-3841
전화 수녀 2-4804
사무 2-0915

1. 신임 사도회 임원:
총회장-이교성, 부회장-이정신·은정숙
선교부-정원희·이성렬·정정수·한선
교육부-김영호·오기수·서민섭·백숙명,
전례부-강정구·이종련·함용광·박연희,
재경부-송원주·김정곤·김종수·허준주,
봉사부-최승기·이창욱·정성수·전영자
2. 본당의 날 행사: 오늘 오전 10시30분 성당 뒷산 왕솔나무 있는 곳